

# 선사들 즐겨 인용한 섭대승경

## 금강삼매경 ㉞

〈금강삼매경〉은 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품(序品), 무상법품(無相法品; 법에는 상이 없다), 무생행품(無生行品; 법이 없는 행을 함), 본각리품(本覺利品; 본각에 의하여 사물을 이롭게 함), 입실제품(入實際品; 虛에서 實로 들어가게 함), 진성공품(眞性空品; 참된 성품은 공하다. 모든 行을 분별하여 眞性의 향으로 나오게 함), 여래장품(如來藏品; 무량한 문으로 여래장에 들을 나타냄), 홍지품(洪持品; 의심을 없애는 부분)의 8품이다.

〈금강삼매경〉은 일명 〈섭대승경(攝大乘經)〉(대승을 모두 포섭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대승 경전의 이론이 망라되어 있다. 〈반야경〉과 〈중론〉의 공사상, 〈화엄경〉의 삼계허망단일심작(三界虛妄但一心作; 삼계가 허망하니 다만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설, 〈유다경〉의 '수불출가 부주재가(雖不出家不住在家;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재가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설, 〈법화경〉의 일승삼승(一乘三乘) 및 장자공자(長者窮子; 장자의 공핍한 아들) 비유, 〈열반경〉의 일천제(一闍提; 불성이 없는 중생)·상락아정(常樂我淨)·불성(佛性)의 설, 〈능가경〉과 〈기신론〉의 불성여래장(佛性如來藏), 본각(本覺)·시각(始覺)설, 명(名)·상(相)·분

## 글쓴이



최유진 (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의 오법설, 〈범망경〉과 〈영락경〉의 보살 52 위설과 삼취정계(三聚淨戒), 당시 유행한 참회(懺悔)·정상말(正像末)·혼구정토(欣求淨土;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의 사상, 삼론종의 9식설, 초기 선종의 이입설



## ㉞ 理入 중생과 부처 둘 아닌 무분별의 경지

## ㉞ 行入 구함없이 경계에 초연한 무생행 상태

〈二入說〉과 수일입여래선(守一入如來禪; 하나를 지켜 여래선에 들어간다) 등 7세기 중반 당시까지 중국에서 성행한 불교 사상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선종과 연관하여서는 이후에 하택신회(荷澤禪會), 정종무상(淨衆無相), 보당무주(保唐無住), 규봉종일(圭峯宗密) 등 성당시대의 선종에서 한결같이 〈금강삼매경〉을 선종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고 또 법안종의 영명연수(永明延壽) 등도 즐겨 인용하고 있는 데서 이 경전이 선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입설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입(二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두 가지 들어감(二入)은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다. 이입(理入)이란 중생이 진성(眞性)과 다르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고 공통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객진(客塵)이 가리는 바 되어 있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임을 깊이 믿고, 마음을 모아 객관(客觀)에 머물러 불성(佛性)

을 자세히 관찰하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자기도 없고 남도 없으며, 범부와 상인이 돌이 아님을 알아서 금강심지(金剛心地)에 굳게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적정하고 무위하여 분별이 없었기에 이것을 이입(理入)이라 한다. 행입(行入)이란 마음이 기울거나 의지하지 않으며 그림자에 흔들리거나 바꿈이 없으며, 모든 처소에서 생각을 고요히 해서 구함이 없으며, 바람이 북 치듯 해도 움직이지 않기를 대지와 같이 하며, 마음과 나를 버려서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함에 무생무상(無生無相)이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원효는 이를 풀이하여, "이입(理入)은 순리(順理)하여 신해(信解)함인데 증행(證行)은 얻지 못했고 위(位)는 지전(地前; 十地 이전)에 있다. 행입은 증리(證理)하여 수행함이며 무생행(無生行)에 들어감이니 위(位)는 지상(地上; 十地 이상)에 있다."고 말한다. 이 이입설(二入說)은 선종의 초조(初祖)인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의 근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금강삼매경〉이 위경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문제에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선종의 이론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강삼매경〉에서는 이입과 행입의 이입(二入)만을 말하고 있는데 비해 보리달마의 이입사행론에서는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의 이입(二入)을 말하고 행입에 다시 네 가지 행을 말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네 가지 행이라는 것은 보원행(報圓行; 괴로운 인생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여 감수함), 수연행(隨緣行; 인연에 隨順하는 행위), 무소구행(無所求行; 구하는 바가 없는 행위), 청법행(稱法行; 법에 맞는 행위)이다.

# 태국 내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3

## 중도

수의 길을 택한 사람은 마땅히 중도(中道)의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패자이나 고통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명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신념을 지키고 변화를 막기 위해 틀 짓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틀 속에서 지라는 것은 망상이다. 초발심이 강한 집착을 만든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 법문을 하실 때부터 양쪽 극단과 중도에 관해서 설했다. 두 극단에는 집착이 발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을 때, 한쪽에서는 고통이 일어난다. 이 싸움은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며, 부처님은 중도로서 이 싸움을 가로질러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기꺼이 고통, 행복, 열정, 냉소 등 모든 변화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을 열면 이 세상에는 고통과 행복이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상은 기쁨·고통, 오르막·내리막, 밝음·어둠, 더위·추위 등 이원적(二元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부분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복만을 찾으려고 해도 고통은 또 다른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고통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은 고통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명상 속에서 맞부딪친 고통은 그냥 보고 헤아리면 된다. 유난히 정신을 집

# 수행자세 갖 피어난 꽃같다

## 마음열면 고통·행복 함께 있음을 이해 "할수 있을까" 자문하는 것은 자기 결박

중한다든지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고 헤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극복하라. 우리는 고통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 세상의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에 세상의 고통을 담는다. 우리는 그 심장의 일부이며, 고통의 일부본은 우리의 몫이다. 연민보다는 즐거움으로 고통을 대해야 한다. 수행의 자세는 갖 피어난 꽃과 같다.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피어나는 꽃처럼 가만히 앉아 고통을 보고 경험할 때, 고통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보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 스스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것은 스스로를 결박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은 인내의 여정으로 행여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질구래한 일들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손수하는 것, 이를 태연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설하기를 하거나, 마음을 챙겨 안전하게 덜거덕대지 않고 집안 일을 하는 것들은 선정 계발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쉽게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 그 속에서 생생한 수행을 해야 한다.

중도는 이 타전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첫 계단이며,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어떤 나라이건 부정과 착취가 있고 전쟁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만약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이 지구의 에너지와 식량을 충분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중도는 우리의 조국 가족 종교간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사람은 탐욕, 집착, 증오, 무지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고통이 여전히 답습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

# 과학산책

## 양자역학 ㉞

지난 시간에 이어 전자를 이용하여 이중 구멍 실험을 계속해보자. 이제 전자를 조정하여 전자가 연속하여 두더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개씩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간섭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는 중첩의 경우와 비슷해진다. 그러나 실험결과와는 그와 반대로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모두 통과한 듯 나타

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자는 입자이며 입자는 파동과는 달리 두 장소를 동시에 통과할 수 없다. 실제로 전자가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는지 알아야 하도록 하자. 벽 뒤에 불빛을 비추어 전자가 어떤 구멍을 통과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다음 실험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 두 개의 구멍 중 단지 한 개의 구멍에서만 전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전자는 한 개의 구멍만을 통과한다고 결론짓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결과는 바로 전의 실험 결과와는 달리가 될 때면 빛의 파장이 두 구멍 사이의 간격 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멍으로 전자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빛을 쏘아야 한다는

증가시킨다. 빛의 주파수가 충분히 낮아 빛의 파동 모양이 나타나게 될 때면 빛의 파장이 두 구멍 사이의 간격 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멍으로 전자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빛을 쏘아야 한다는

## 주관과 객관 서로 연결

### 빛 비추면 전자입자 파동으로 바뀌듯 실험 관찰자가 관찰대상에 영향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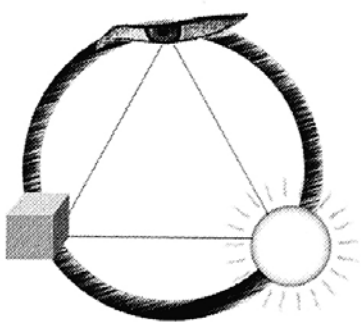
이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빛의 주파수를 줄여 빛 에너지가 작아져 전자가 빛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주파수를 낮추고 실험을 다시 해본다. 우리는 중첩을 사용한 실험의 결과를 얻는다. 더 낮추면 파동과 같은 모양의 결과를 얻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빛의 주파수를 낮추는 것은 빛의 파장을

증가시킨다. 빛의 주파수가 충분히 낮아 빛의 파동 모양이 나타나게 될 때면 빛의 파장이 두 구멍 사이의 간격 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멍으로 전자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빛을 쏘아야 한다는

증가시킨다. 빛의 주파수가 충분히 낮아 빛의 파동 모양이 나타나게 될 때면 빛의 파장이 두 구멍 사이의 간격 보다 더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멍으로 전자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빛을 쏘아야 한다는

## 관찰과 관찰자

원리(해상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 일련의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훈을 제공하는다. 즉, 관찰은 관찰이 행해지는 실험의 맥락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히 전자가 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지는 않다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두



구멍 실험을 통해 전자를 관찰하면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다른 실험을 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어떤 실험을 계획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의 성질을 가정한다. 그리고 그 가정하에서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관찰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관찰 대상에 부딪쳐 반사되는 빛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려는 의도는 이미 빛을 그 관찰 대상에 쏘이게 하고 그 빛의 쏘임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됐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❶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소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운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과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밤마다 찾아왔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과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펼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해 주어야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